

2024년 9월 29일(주일) 제1702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4년 사명자대회

10월 6일(주일)-11월 24일(주일)

특별새벽기도회 : 11월 18일(월)-11월 23일(토) 새벽 5:00 - 6:00

강사 : 손달익 위임목사

2024 사명자대회가 10월 6일(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사명자대회 주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이며 성구는 히 10:24-2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개신교 연합 총회장 방문

오늘 I·II부 예배 설교

9월 29일 주일에 프랑스 개신교 연합 총회장 엠마누엘 세이볼트(Emmanuelle Seyboldt) 목사와 국제부장, 통역 선교사, 수행원 등 총 네 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회장인 엠마누엘 세이볼트(Emmanuelle Seyboldt) 목사는 오늘 1, 2부 예배 설교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엠마누엘 세이볼트 목사
(Emmanuelle Seyboldt)

2024 성경암송대회

예선 : 11월 9일(토)

본선 : 11월 10일(주일)

2024 성경암송은 11월 9일(토)-10일(주일) 일정으로 말씀은 잠언 17-24장입니다.

11월 9일(토)에는 예선을, 11월 10일(주일)에 교회학교 별로 본선을 진행하며 전년과 동일하게 교육 1국 미취학아동 부서는 전장이 아닌 일부만 암송합니다. 교육국 본선은 각 부서 별로 진행하시고 시상 또한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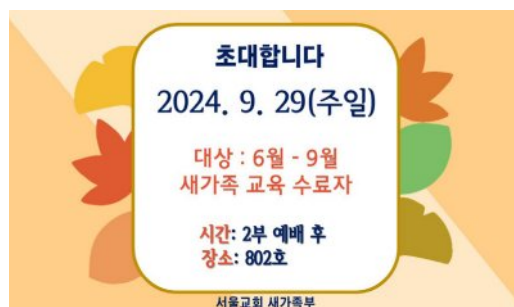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2024년 2차 새가족환영회

오늘 2부 예배 후 802호

새가족부(부장:차영도 장로)에서는 9월 29일 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수료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 새가족 교육수료자 모두가 참석하셔서 서울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도와의 교제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다

행 2:42-47



손달익 위임목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하셨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홀로 남은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행 2:1-4) 영문을 몰랐던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게 어찌 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혼란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 일이라고 설명을 하며 유대인들의 회개와 예수 신

앙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고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는 소망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1. 바른 신앙의 확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을 2:28-29)라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성령께서도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했고(마 3:16),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눅 4:1-2)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강조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두신 때였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마지막 설교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며 성령 임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심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전 12:3)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은혜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의 결과이어서 믿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순절 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그러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흔히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면 광신자가 되거나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믿음은 아주 정상적이고 이성적이며 모두에게 공감 가능한 바른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등 인격의 모든 분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를 인식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성령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습니다.

2. 새로운 공동체 형성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했고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는데 그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본 특성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42절)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모든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 동력은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직후의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는 내용도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가르치기를 시작한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혈연으로 결속된 민족 공동체였던 것에 비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민족을 포함하는 공동체입니다. 유대교 공동체가 사회적 강제성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자발적 헌신에 근거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상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미처 조직화하지 못한 모임이었고 운영의 설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공동체였지만 처음부터 세계 열방을 상대로 비전을 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사도들은 사명감을 갖고 가르침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모습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으로부터 해방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스테반, 빌립, 바나바와 같이 기라성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적 헌신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3. 사회적 인정

모든 지상의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지금의 현주소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에 있습니다(Not of the world but in the world). 예루살렘교회는 신생의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세상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원칙 없는 개방성 때문에 본질을 상실하는 세속화도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세상과의 지나친 단절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입니다.(47절) 이것은 기존의 유대교에서는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초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교가 예수님으로부터 지나치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대하여 호되게 책망받은 것처럼 너무나 겉모습에 치중했지만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감격과 기쁨과 생동감이 넘쳐났는데 이 부분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보기에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제도와 예배형식이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교회의 영향력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파나 제도에 관계없이 신앙의 진정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께 대한 순교적 충성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로마를 변혁시켰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순결하고 거룩 신앙으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신앙과 사랑의 진정성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사명자대회가 10월 6일(주일) 시작됩니다!



이민호 장로
(2024 사명자대회 본부장)

사명자대회는 1991년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50일간 서울교회 설립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뜨거운 헌신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회, 금요심야기도회, 24시간 연속기도회 등 특별 기도운동과 노방전도, 축호전도, 찬양전도집회, 태신자 갖고 기도하기 등 전도 운동을 집중적 전개한 “비전 2000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에 주신 천국시민 양성, 만

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지난 33년간의 서울교회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오늘 서울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새롭게 찾아 행동하는 사명자로 새롭게 서기 위하여 2024년 사명자대회를 10월 6일(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금년 사명자대회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를 주제로 히브리서 10:24-25의 말씀과 218장(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으로 진행되며, 사명자대회 기간을 통하여 온 성도가 교육, 전도, 구제의 서울교회 3대 기둥을 이루는 사명자로 바로 세워지는 기간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직으로 진행됩니다.

사명자대회 주요 내용

I. [교육] 말씀 사모 실천하는 사명자 되기 위하여!

- 새벽기도회
 - 기간 : 2024. 10. 07(월)-11. 16(토) / 매일 05:30-06:00
 - 장소 : 1층 웨스트민스터홀
 - 내용 : 사명자대회 주제 설교와 찬송으로 새벽기도회 진행
- 특별새벽기도회
 - 기간 : 2024. 11. 18(월)-23(토) / 매일 05:00-06:00 본당
- 2024년 전교인 성경읽기 참여
 - 순례자에 매주 게시되는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에 따라 성경 읽기 훈련을 위해, 순례자에 확인(체크)하고, 사명자대회 기간 중에는 해당 지면을 오려서 매주 본당 입구 제출함에 제출
 - 제출된 현황(참여자 수)을 교구(다락방)별로 누적 집계하여 우수다락방 표창
- 성경암송대회(주관 : 교육위원회)
 - 말씀 : 잠언 17장-24장
 - 일정 : 예선 11월 9일(토) / 본선 11월 10일(주일)

II. [전도] 복음전도 실천하는 사명자 되기 위하여!

-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사명자
 - 사명자대회 기도 카드에 사명자대회 기간 중, 마음에 품고 기도할 대상자를 작성하고 집중기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마음에 품을 이웃은 가족, 친지, 직장이나 학교 동료, 서울교회를 떠난 교우, 예수님 사랑을 모르는 이웃 등등
 - 사명자대회 기간 중 직접 만나거나, 서면, 전화, SNS 등을 활용해 예수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천함
- 품은 이웃을 교회로 초대하는 사명자
 - 사명자대회 기간 중 마음에 품은 이웃을 ‘이웃초청 공감음악회’에 특별 초대함
 - 마음에 품고 기도한 이웃을 교회로 인도함
 - 특별히, 교회 분쟁 중 교회를 떠난 이웃과 분쟁 중 다투었던 교우를 용서하며 기도하고, 11월 24일 교회 설립 감사주일에 배에 참여하도록 서울교회로 인도함

III. [구제] 예수 사랑 실천하는 사명자 되기 위하여!

- 사랑의 바자 : 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됨
- 이웃초청 공감음악회
 - 일시 : 11월 16일(토) 19시 본당
 - * 금난새 지휘 오케스트라, 우리 교회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와 찬양팀 등으로 구성된 음악회로 지역 주민과 학원가 학생, 성도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이웃을 초청함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1.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되게 하소서

[청빙을 위하여]

2.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청빙 절차가 진행되게 하시고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실 목회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하여]

3.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자 되게 하소서

[가정과 다음세대를 위하여]

4.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5.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고 선교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6.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를 적으세요.

사명자대회 조직

- 대회장 : 손달익 위임목사
- 지도교역자 : 최종국 목사
- 본부장 : 이민호 장로

* 기획 및 운영주관

- 바울 선교회 (회장 : 김영희 안수집사)
- 마리아전도회 (회장 : 김연화1 권사)
- 에스더전도회 (회장 : 박민숙 권사)

* 실행부서 및 책임자

- 집회안내분과
(예배위원회 부위원장 : 황병석 안수집사)

- 주차관리분과
(차량관리부장 : 김용기 안수집사)
- 홍보동원분과
교구(다락방장)와 교회학교(교사)
 - 교구위원회(서기 : 김형상 안수집사, 총무 : 이겸손 안수집사)
 - 교육위원회(서기 : 김세호·임종현 안수집사, 회계 : 안재희 집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25)



장상국 안수집사
(2024 바자
기획부장)

긴여름의 끝자락에 불어오는 한줄의 시원한 바람은 그동안의 더위를 한순간에 날아가게 합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가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처럼 끝날 것 같지 않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거치고 코로나를 지나 다시 개장한 서울교회 바자는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면서 벌써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지치고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고 챙겨주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는 진정한 지역주민과 더불어 하는 서울교회 바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바자는 대치1동 동사무소와 함께 하는 제1회 한티문화 축제와 더불어 진행하게 되었

으며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플라마켓(벼룩시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서 어색할 수도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마음으로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1. 교회학교 중심의 플라마켓(벼룩시장):

- 학생들이 자리를 구매하여 직접 판매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여 학생들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
- 더불어 각 교회학교별로 행사 때 사용하고 남은 물건 또는 오랫동안 방치한 물건을 교회학교별로 직접 판매하는 방식

2. “우리 집 창고 비우기” 운동

우리 집 창고 비우기 운동은 판매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는 행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변화를 바자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의 마음을 기부금 형태로 참여하는 서울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온 사랑의 온도계가 이번 바자회에서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만 원이 1도로 하여 진행하지만 금액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 온도계는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물품이나 사랑의 온도를 통해 기부하신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바자회는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참석하여 즐거운 축제를 아이들에게도 마음껏 즐기게 하시고 바자의 의미가 잘 전달되어 삶에서 배려와 섬김의 가르침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3강 : 사도신경 -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사람들 곁을 떠나셨지만,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다른 명칭은 보혜사(保惠師)로 문자적인 의미는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은 비록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게 되었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강해져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준비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갈 때, 곧 흠어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흠어짐으로써 본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아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흠어진다는 것은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고 뛰쳐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성령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53문 :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여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대 교회의 신앙고백을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상대적으로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성령은 성부와 성

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요약함으로써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강조합니다.

성령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두 번째 부분은 성령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령은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분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넷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사역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많은 오해들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비인격적인 신적 능력(divine power)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이러한 오해는 기독교적인 오류와 연결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단적 이론은 양자설(Adoptionism)로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에게 신적인 능력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셔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주장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시하는 또 다른 예는 성령을 동양 사상의 기(氣)로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성령을 기로 설명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동시에, 그 기를 간직한 사람을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오류를 만들어 낸다는 점입니다.

54문 :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삼위로 일체되신 하

나님뿐만 아니라 교회도 믿음의 대상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길게 진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라고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는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곧 교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란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은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53문에서 성령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성령의 본질과 역할로 나누어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한국교회사 50장면' 단행본 출간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손달익 위임목사님께서 순례자에 한국교회사 50장면을 연재하여 우리 역사 한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순례자 편집부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한편의 단행본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피택 안수집사와 피택 권사 필독서로 제공되며 구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 간사님들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에 신청이 안되신 분은 사무국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하기
2. 앞열 혹은 2층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전도대 10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9.29	자원자	스데반회	10.2	도르가, 루디아, 뵤뵤
10.6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10.9	한글날
10.13	자원자	바울, 엘리야	10.16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10.20	자원자	모세	10.23	리브가
10.27	자원자	이사	10.30	권사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9월30일	월	마 14-15	열상2	갈6	겔33	시81,82
10월1일	화	마 16-18	열상3	엡 1	겔 34	시83,84
10월2일	수	마 19-21	열상4,5	엡2	겔35	시85
10월3일	목	마 22-23	열상6	엡3	겔36	시86
10월4일	금	마 24-25	열상7	엡4	겔37	시87,88
10월5일	토	마 26	열상8	엡5	겔38	시89
10월6일	주일	마 27-28	열상9	엡6	겔39	시90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저희의 삶이 당신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령 안에서 평안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묶어, 복음의 빛을 세상 끝까지 비추게 하소서. 제4대 위임목사님 청빙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3. 이 땅과 온 열방 위에 주님의 화해와 평화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갈등을 넘어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사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홍기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태연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